



아산사회복지재단 설립 1호 정읍아산병원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인간의 존엄성에 가치를 두는 올바른 병원
의료사업, 사회복지, 학술연구, 장학사업 등
핵심 가치를 지켜 나간다

‘유병장수 시대’가 왔다. 말 그대로 병을 갖고 오래도록 산다는 뜻이다. 현대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와 같은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달라진 식문화, 산업화된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각종 성인병 등의 질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현대 의학의 발달로 그 병을 치료하는 능력 또한 갖췄으니 ‘유병장수’라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생각해 보면 전쟁과 가난으로 아주 작은 질병하나 치료하지 못해 많은 이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 시절에 대한 설움이 요즘 시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지금으로부터 38년 전, 우리나라 산업화시대 발판의 주역이었던 아산사회복지재단(이하 아산재단)의 설립자 고(故) 정주영 회장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신념으로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먼저 현대적 병원을 건립하고 1989년에 서울아산병원을 개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종합 의료 기관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그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정신으로 ‘사회 환원’이라는 그의 경영 마인드를 실현했던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재단 사업은 크게 ‘의료사업’, ‘사회복지’, ‘학술연구’, ‘장학’ 등 4가지의 큰 핵심 목표로 나뉘었고, 당시 의료 혜택이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했던 농어촌지역을 중점적으로 아산병원을 설립하기 시작했으며, ‘의료사업’의 첫걸음으로 아산재단 1호 병원인 ‘정읍아산병원’을 개원하게 되었다.

30여 년의 ‘정읍아산병원’과 긴 세월을 함께 해온 문숙란 병원장은 지난날을 돌아보며 의료인의 긍지를 지켜준 것은 바로 ‘정읍아산병원’이라고 겸손하게 이야기 한다. 아산재단의 핵심 가치인 ‘의료사업, 사회복지, 학술연구, 장학’은 의사라는 직업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사회 소외계층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묵묵히 한 길만을 가고 있는 정읍아산병원 문숙란 병원장을 만나 ‘이웃을 위한, 이웃에 의한’ 정읍시 거점병원으로서 발전 방향 전반에 대해 들어봤다.



필요한 곳에 존재하는 것이 병원이다.
1978년 7월1일, 아산재단 설립 1년이 되던
날 정읍아산병원의 첫 문을 열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진료는 물론 경제
적 여건이 충분치 못한 지역민들을 위한
병원으로 설립하자는 취지로 개원한 본
병원은 오늘날에도 영리만을 쫓는 병원이
아닌 사람을 쫓는 병원의 역할을 잘 감당
해 나가고 있다.

“아산재단은 정읍, 보성, 보령, 영덕, 흥천,
강릉 등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차례로 중
합병원을 설립해 나갔다. 특히 병원설립 지
역은 도심이 아닌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이
었다. 정읍아산병원의 위치는 당시 고창,
부안을 가기 위해 꼭 거쳐 가는 지역으로 정
읍뿐만 아니라 고창, 부안 주민들도 편히
이용할 수 있게 자리한 것이다.”며 문 원장
은 정읍아산병원의 위치 선정과 설립 목적
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로 정읍아산병원은 정읍, 고창, 부안
및 순창 일부 지역을 포괄하는 전북 서남
권역의 중추적 의료기관으로서 신속한 진
료와 검사, 재활 등에서 의료 역량을 발휘
하고 있다. 오늘날 정읍시 거점병원으로
서 지역사회로 부터 신뢰받는 병원, 의료
진 모두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하면서 시민들의 따뜻한 사랑
을 받고 있다.



최첨단 의료기기, 최고의 의료진이 진료

처음 100병상으로 시작한 정읍아산병원은 환자가 늘어나고, 더 나은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200병상으로 확대하였고, 현재는 300병상 규모로 자리 잡았
다. 많은 이들이 ‘병원은 서울로 가야지’, ‘지방에 있는 병원은 열악해’라는 인
식이 있다. 하지만, 정읍아산병원의 최첨단 의료기기와 실력을 인정받은 의료
진을 본다면 그러한 인식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문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의사가 30명 정도며, 직원은 300명에 달한다. 의료
기기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구입할 때 함께 구입하기 때문에 최첨단 기기라고
볼 수 있다.”라며 “지역병원이라고 낙후된 것이 아니라 대학 교수진을 배치해
최고의 권위와 의술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암 수술과 같은 중병은 서울아산병
원의 유명 의료진이 이곳으로 직접 내려와 수술을 집도 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지역의 유명 병원의 경우 진료접수 조차 힘든 경우가 대다수다. 하
지만, 아산재단의 산하병원으로서 정읍아산병원의 진료를 통하면 서울아
산병원의 치료 또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받을 수 있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와 같이 아산재단의 여러 병원이 함께 협력하기에 환자들에게는
“다가서는 병원, 함께하는 병원”으로서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웃을 돕는 병원, 의료사업을 넘어서 지역사회에 공헌

정읍아산병원은 ‘기본적인 설립 취지를 절대 잊지 말자’라는 정신으로 고창과



정읍교도소와 정읍아산병원은 지정병원으로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는 문숙란 병원장(우측 첫번째)

2016학년도 아산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2016. 3. 8(화), 오후4시 정읍아산병원



2016 학년도 아산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행사에 참석한 문숙란 병원장(앞줄 우측 3번째)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를 시와 군에서 추천받아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고관절, 인공관절, 요실금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질병을 지원하고 있다. “진료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되는 모든 환자는 병원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와 군에서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산재단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와 장학사업은 재단의 지역병원에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정읍아산병원은 취약계층 대상 집수리와 가전제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읍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45여 명을 돕고 있다. “장학금 지원 대상 선발은 매년 교육청에 연락해 각 학교별로 추천받고 있다. 사회복지 대상자 또한 시·군에서 추천해 주면 병원 측에서 검토 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놀랍게도 정읍시에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없다. 응급실 운영을 위해 많은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병원에서 운영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정읍아산병원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



2015.3 전라북도병원협회사협회 제37차 정기총회 및 정책세미나 행사에서 상을 받고있는 문숙란 병원장(우측 첫번째)

고 있으며, 응급전문의가 상주해 모든 분야를 치료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입원실에 300개 가까운 병상이 마련돼 있으며, 외래 진료가 하루 7~800명이 방문할 만큼 종합병원의 형태를 갖춰 가고 있다. 정읍아산병원은 농어촌 인구의 도시 유출 등 설립 당시 보다는 열악해진 병원 경영 상황에서도 서울아산병원과 연계한 의료 수준의 향상은 물론 경영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어 가다

정읍아산병원 임직원 모두 아산재단의 병원에 근무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 이유는 유명 재단이라서가 아니라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직장에서 나서서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회복지, 장학 등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직원들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자부심은 보는 사람마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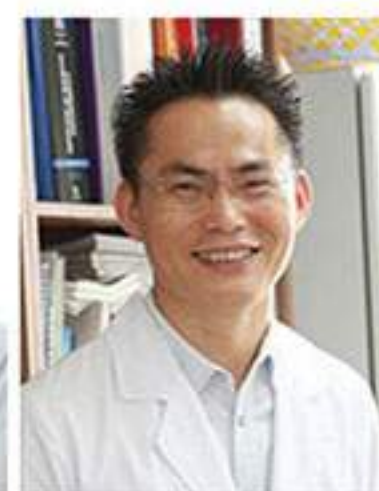
정읍아산병원 문숙란 병원장



서재석 (제1내과)



이진희 (제2내과)



김현기 (정신건강 의학과)



이정훈 (외과)



채규학 (이비인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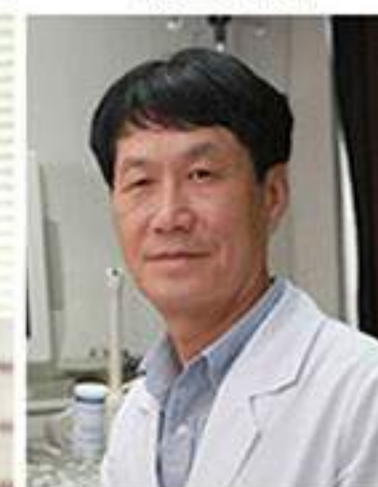
송진호 (제1정형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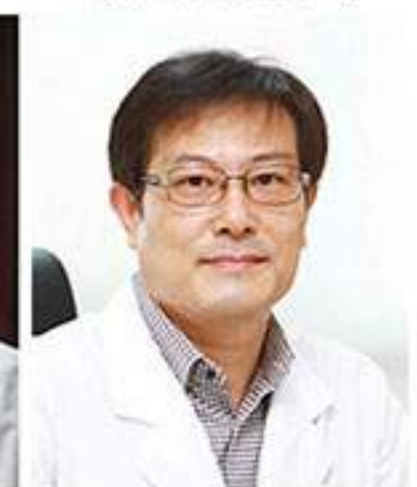
박기태 (제2정형외과)



전진홍 (신경외과)



양기승 (산부인과)



김송태 (소아청소년과)





병원앞 뜰에서 의료진들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진 문숙란 병원장 (좌측 3번째)

정읍아산병원은 대기업, 공무원에 맞먹는 입사 경쟁률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어렵게 들어온 만큼 정년퇴임 할 때까지 퇴사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읍아산병원 임직원들은 사회복지 사업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1:1 매칭 해 연탄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집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등 말뿐만이 아닌 삶으로 병원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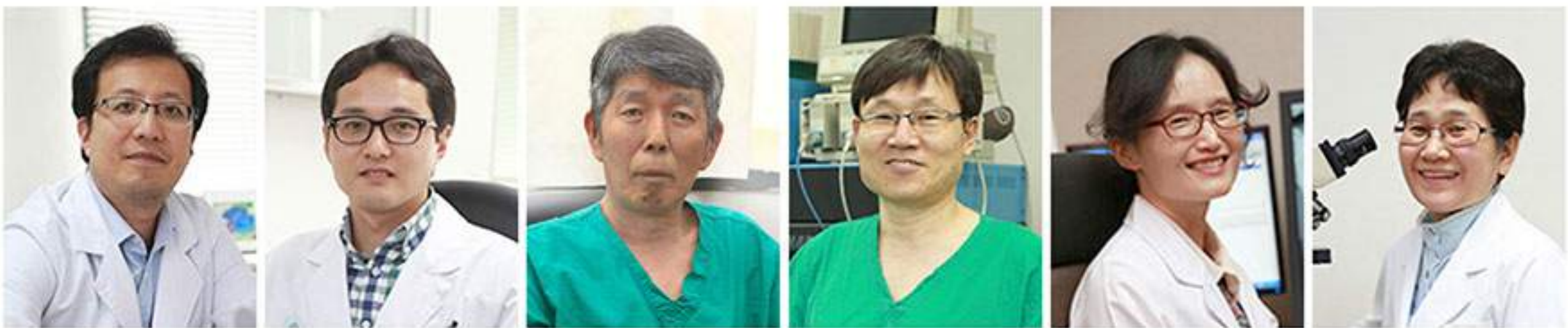
병원의 핵심은 '순수진료'다

정읍아산병원의 강점은 뛰어난 의술과 편리한 시설만큼이나 강한 '초심'일 것이다. 고(故) 정주영 설립자의 말처럼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희망을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며, 지역민들의 건강을 지켜가고 있다. 설립자의 마음을 이어가려는 문숙란 병원장은 의료인으로서 나름의 경영철학을 지켜가고 있다. "'순수진료를 하자' 매스컴에도 나오듯 지나친 시술 등으로 인해 부작용도 많고, 영리만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 많은데 병원은 본래 목적에 맞게 병을 낫게 하자는 순수한 마음의 진료를 해야 한다."며 "정읍아산병원은 재단 병원이기에 순수진료 마인드를 지킬 수 있다. 대형병원의 경우 의사도 수익창출을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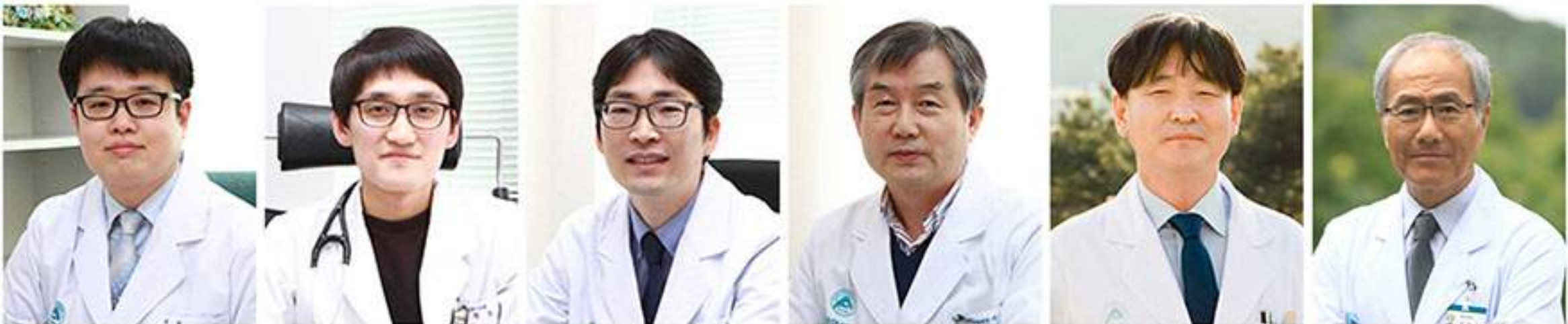
해 부담을 많이 갖게 된다. 이러한 부담은 분명 환자에게 미칠 것이다. 하지만, 이곳은 환자를 가장 건강하게 또 편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사명감으로 임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했다.

문숙란 병원장은 앞으로도 정읍아산병원이 변함없이 지역주민들에게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내고, 그 자리를 오래도록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흔들림 없는 병원이 되길 바란다. 빠르고, 쉽게 변하는 시대에 의료진이 바뀌더라도 또는 제가 정년퇴임을 하더라도 남을 위한 병원이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진료에 불편이 없는 병원이 되길 의료인으로서 소박한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오늘날 물질만능주의 사상은 절대 미쳐서는 안 될 '의학'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당연히 되어야 할 병원의 '양심'은 물질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곤 한다. 하지만, 좋은 마음을 반석으로 세워진 정읍아산병원과 같이 물질의 가치가 아닌, 사람의 존엄성에 가치를 두는 올바른 병원, 양심적인 병원이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 또한, 그러한 병원들이 사회의 따뜻한 기둥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길 기대한다. 🇰🇷 정채균 기자



임형석 (가정의학과) 박정선 (피부비뇨과) 이영범 (마취통증의학과) 양재덕 (마취통증의학과) 김잔디 (영상의학과) 송혜숙 (해부병리과)



김동현 (제3내과 신장클리닉) 김형호 (제5내과 호흡기클리닉) 오명근 (제6내과 소화기클리닉) 서동식 (직업환경의학과) 이재인 (응급의학과) 조임근 (응급의학과)

